

## 사회적 거절 경험 이후 애착 안정성 점화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여대생의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 미치는 영향

황 보 랫 이 승 연<sup>†</sup>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회적 거절 경험이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애착 안정성 점화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거절로 인한 고통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18-25세 여대생 9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애착 안정성 점화 유/무) × 2(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높음/낮음) 피험자 간 설계로, 실험 전에 온라인 설문을 통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실험 참여자 모두에게 사회적 거절 유발 절차를 실시하였고, 이후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과제를 통해 애착 안정감을 조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추후 협동과제에 대한 참여 선호도로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을 측정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 대한 애착 안정성 점화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애착 안정성 점화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를 수행한 집단은 통제 글쓰기를 수행한 집단에 비해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을 더 많이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발견의 시사점과 사회적 거절을 경험한 개인들이 새로운 유대관계를 구축해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거절,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 애착 안정성 점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sup>†</sup> 교신저자 :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 서대문구 대학동 이화여대길 52

E-mail: slee1@ewha.ac.kr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며 많은 경우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고통 받는다. 인간은 본인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누군가를 끊임 없이 추구하는 존재로, 대인관계에서의 소속감은 인간 생활의 근원적인 동기이자 개인의 적응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Baumeister & Leary, 1995). 타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것이나 집단에서 홀로 소외되는 등의 사회적 거절 경험은 대인 관계에서 소속에 대한 욕구를 좌절시키며(DeWall & Bushman, 2011), '거절 당했다'는 느낌은 감정조절 능력을 저하시키고, 타인에 대한 신뢰 부족 및 공격성을 유발하여 사회적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을 줄이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Baumeister, DeWall, Ciarocco, & Twenge, 2005; 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3; Twenge et al., 2007).

소속 욕구의 충족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발달적 과업이지만, 이러한 사회적 유대의 추구는 성인진입기에 특히 중요해진다(Arnett, 2000). 성인진입기는 청소년 혹은 성인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사이에 끼어 있는 시기'로 흔히 18-25세의 연령 집단을 의미한다(Arnett, 2000). 성인진입기에 대학에 진학하여 사회적 맥락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증가하는 동시에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거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는데(김현주, 김준영, 2008), Pharo, Gross, Richardson와 Hayne(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기(13-17세), 성인진입기(18-22세), 초기 성인기(23-27)를 비교한 결과, 성인진입기 집단이 사회적 거절로 인한 자존감 손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진입기가 사회적 거절로 인한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발달적 시기임을 의미하며, 이 시기에 겪는 사회적

거절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남성은 타인과의 비교로 본인의 능력에 대해 확신함으로써 소속감을 충족시키는 것과 달리 여성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 맺기를 통해 소속감을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절이 소속감에 미치는 위협은 여성에게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 Robbins, 2000; Sullivan, Farrell, & Kliewer, 2006). 더불어,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Duke, Krishnan, Faith, & Storch, 2006)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거절 이후 대인관계 자체를 회피하는 반응을 더 많이 보일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에 속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거절에 대한 상반된 행동적 반응을 발견해 왔다. 일부는 자신에게 해를 가한 가해자 혹은 본인의 거절 경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제 3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Bushman, Baumeister, & Phillips, 2001; Leary, Twenge, & Quinlivan, 2006). 이러한 반응 양상은 개인으로 하여금 통제감과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지만(Warburton & Williams, 2005), 타인에게 공격성을 표출함으로써 이후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소속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점에서 비적응적인 대처 방식이라는 한계점을 지닌다(Gaertner, Iuzzini, & O'Mara, 2008). 반대로 타인과의 연결성을 회복하여 새로운 사회적 유대를 구축하려는 시도도 관찰되는데, 타인의 관점을 취하려 노력하기, 타인의 의견을 더 고려하기, 협동과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 등이 예이

다(Gardner, Pickett, & Brewer, 2000; Knowles, 2014; 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이는 이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여 집단에 다시 소속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충족된 소속 욕구가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적응적인 대처방식이라고 할 것이다(Mellor, Stokes, Firth, Hayashi, & Cummins, 2008; Van Ryzin, Gravely, & Roseth, 2009).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거절 경험 이후 사회적으로 적응적 결과인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을 회복하려는 행동적 시도가 아니라, 연결성을 회복하려는 의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타인의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거나, 타인에게 호의적 말투로 대화하는 것 등 타인과의 유대를 회복하려는 행동적 시도는 친사회적 행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Rubin & Babbie, 2008). 구체적으로, 낮은 타인과의 대화를 나눠야 하는 상황에서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는 이유가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함인지, 혹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준을 따름으로써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함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즉 연결성 회복을 위한 행동을 측정하는 방식이 타인과의 연결성을 회복하려는 의향을 분명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 때문에(Molden & Maner, 2013), 본 연구에서는 대신, 연결성을 회복하려는 의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사회적 거절을 경험한 후 공격성을 표출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타인과의 연결성을 회복하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비일관적인 반응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인지과정의 차이

로 설명할 수 있다. 타인을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적대적 인지 처리 과정이 활성화될 경우 공격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인지 처리 과정이 활성화될 경우 연결성 회복을 위한 반응을 하게 된다(DeWall, Twenge, Gitter, & Baumeister, 2009; Lansford, Malone, Dodge, Pettit, & Bates, 2010). 후자의 경우처럼 긍정적 인지 처리가 연결성 회복 의향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과정은 Maner, DeWall, Baumeister와 Schaller(2007)의 사회적 재연결 가설을 통해 설명가능하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 거절 경험 이후 결핍된 소속 욕구를 다시 채우기 위하여 타인과의 연결을 더욱 갈망하게 된다. 이때 타인과의 새로운 만남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새로운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연결성 회복 의향을 나타낸다(Maner et al., 2007). 예를 들어, Mallot, Maner, DeWall와 Schmidt(2009)의 연구에서, 타인과의 만남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 거절을 경험한 뒤 새로운 파트너에게 호의적인 눈빛과 목소리로 반응한 반면, 타인과의 새로운 만남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 거절을 경험한 뒤 새로운 파트너에게 현저히 낮은 수준의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사회적 거절 경험 이후 연결성 회복을 위한 반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향상시켜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Twenge 등(2007)의 연구에서 사회적 거절 경험 후 친한 친구에 대한 회상 글쓰기 과제(긍정적 사회적 연결 경험 유)를 수행한 집단은 학교 오는 길에 대한 회상글쓰

기 과제를 수행한 통제 집단(긍정적 사회적 연결 경험 무)에 비해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에게 듣기 싫은 소음을 제공하는 정도가 현저히 작았으며,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신뢰점수가 더 높았다. 추가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 거절 경험과 공격성 간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친한 친구 회상이 타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수용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켜 새로운 타인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려는 방향으로 행동이 조절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착 대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 과정인 '애착 안정성 점화(security priming)'를 사용하여 긍정적 사회적 연결경험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Bowlby, 1982) 인간은 애착 행동 시스템이라는 심리학적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애착 행동 시스템은 필요시에 보호, 지지, 위안을 제공해주는 애착 인물에 대한 근접성을 추구하도록 동기화시킨다. 필요시에 적절한 지지를 제공해주는 애착 인물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내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애착 대상에게 접근한다면, 적절한 지지와 도움을 받아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애착 안정감을 형성하게 한다(Bowlby, 1988).

애착 안정감은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애정과 지지를 받은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획득가능하다(Mikulincer & Shaver, 2004).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지지와 애정을 받은 애착 관련 경험을 떠올리는 경우, 이전에 본인이 위협에 처했을 때 애착 대상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안정감을 느꼈던 유사한 경험에 대

한 기억들은 더 활성화되는 반면, 적절한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부정적 기억들은 약화된다(Gillath, Selcuk, & Shaver, 2008). 즉, 긍정적 내적 작동모델을 활성화시켜서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강화시키고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구체적으로 애착 안정성 점화는 부정적 정서와 고통 완화, 자기가치감 향상,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과 기대,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 등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대인관계적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Barz & Lydon, 2004; Cassidy, Shaver, Mikulincer, & Lavy, 2009; Kumashiro & Sedikides, 2005; Rowe & Carnelly, 2003). 더 나아가 애착 안정성 점화는 사회적 거절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줄이고 긍정적인 인지적 처리를 활성화 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rremans, Heslenfeld, Van Dillen, & Van Lange, 2011; Hermann, Skulborstad, & Wirth, 2014; Mikulincer, Shaver, Bar-On, & Sahdra, 2014).

한편 개인의 애착 경향성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되게 나타나기 때문에(Collins & Feeny, 2000), 애착 유형에 따라 애착 안정성 점화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서 각자의 애착 유형과 무관하게 애착 안정성 점화에 따라 공감, 도움 행동과 같은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Gillath & Shaver, 2007; Mikulincer & Shaver, 2001). 그 예로, Mikulincer와 Shaver(2005)의 연구에서 안정 애착 대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실시한 집단은 애착 대상으로서 기능하지 않는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실시한 집단에 비하여, 혐오적 과제 수행 중 고통스러워하는 실험자의 모습을 보고

그를 대신하여 과제를 수행하려는 동기가 더 높았다. 그러나 애착 유형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모든 인간이 증진된 애착 안정감에 잠재적으로 반응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지닌 애착 유형의 차이와 상관없이 애착 안정성 점화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시사한다(Mikulincer, Hirschberger, Nachmias, & Gillath, 2001).

한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데(Leary, 1983), 동일하게 사회적 거절을 당하더라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Maner et al., 2007). 실험 상황에서 사회적 거절을 경험시킨 뒤 새로운 파트너의 얼굴 사진을 제공하였을 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집단은 새로운 파트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타인과의 새로운 만남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지각하며 사회적 유대를 구축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Bernstein, Young, Brown, Sacco, & Claypool, 2008; Jamieson, Harkins, & Williams, 2010). 반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높은 사람은 단 한 번의 거절 경험을 타인에게 일반화하여, 새로운 타인과의 만남을 미래의 잠재적 거절 위협으로 지각하기 쉽다(Heimberg, Lebowitz, Hope, & Schneiner, 1995). 그 결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높은 집단은 새로운 파트너의 얼굴 사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았고 사회적 거절 이전보다 호의적 태도의 현저한 감소를 보였으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협동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낮았다(Maner et al., 2007; Mallot et al., 2009; Tsumura & Murata, 2015).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절 이후 타인과의 새로운 만남을 미래의 잠재적 거절 위협으로 지각한다는 것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절을 당할 경우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인지적 처리과정이 활성화됨을 의미한다(Heimberg et al., 1995; Maner et al., 2007; Tsumura & Murata, 2015). 그런데 Lucas, Knowles, Gardner, Molden과 Jefferis(2010)의 연구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고자하는 동기를 의미하는 향상 동기(promotion motivation)를 점화하는 글쓰기 과제를 시행한 결과, 여름 방학 동안의 활동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시행한 통제 집단에 비해 부정적 평가에 대한 염려가 감소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동조하는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인지적 처리 과정에 실험적 처치를 가함으로써 이들의 관계 회피적 패턴을 개선하고 사회적 연결성 회복 의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Higgins, 1997; Molden, Lee, & Higgins, 2008). 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거절 이후 새로운 타인과의 만남을 또 다른 관계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애정과 지지를 받은 경험을 상기시킴으로써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고 앞으로의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가 증진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처리 과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실험적 처치로써 애착 안정성 점화를 실시하였을 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타인과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지

각하게 하여 사회적 연결성을 회복하려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에 속하는 여대생의 사회적 거절 경험이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애착 안정성 점화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애착 안정성 점화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회적 거절을 겪은 후 나타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적 처리 과정을 애착 안정성 점화가 바르게 교정하여 새로운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애착 안정성 점화 유무가 사회적 거절 경험 이후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높음/낮음)이 사회적 거절 경험 이후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거절 경험이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애착 안정성 점화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및 절차

실험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18-25세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는 정도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모집 및 홍보는 서울 소재 대학 내 온라인 게시판 및 오프라인 안내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370명이 설문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결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점수가 높은 집단(+1SD 이상)과 낮은 집단(-1SD 이하)을 추출하여 집단을 구성하였고(Maner et al., 2007), 최종적으로 실험 참여에 동의한 9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과 실험의 의도를 파악한 5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8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전체 실험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1.51세( $SD=1.88$ )였다. 전공 계열은 사회계열이 34.9%로 가장 많았고, 사회 경제적 수준은 '중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실험설계

본 연구는 2(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과제 수행 유/무)와  $\times$  2(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 고/저)의 피험자 간 설계로 이루어졌다.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과제 수행 유/무에 따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 고 집단에서는 각 22명, 21명씩,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 저 집단에서는 20명, 20명씩 무선 할당 방식을 통해 배정되었다.

### 측정도구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Watson과 Friend(1969)가 30문항으로 개발하였던 척도(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를 Leary(1983)가 전체 척도점수와 .50이상의 상관성이 있는 문항 12개를 뽑아서 단축형으로 제작한 것을 기초로 하여, 이정윤, 최정훈(199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2, 4, 7, 10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을 나타낸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가 어떤 인상을 주는 지에 대해 대개 걱정된다.' 등이 있다. 이강아, 홍혜영(2013)의 대학생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90이었다.

### 사회성

타인과의 만남과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개인적 특성이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Cheek와 Buss(1981)가 개발한 척도(The Sociability Scale)를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 수는 총 5개이며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Leary(2003) 등의 대학생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7이었고, 본 연구에서 .73이었다.

### 지각된 애착 안정감

Luke, Sedikides와 Carnelley(2012)가 애착 안정성 점화에 대한 조작 확인을 위해 개발한 척도(The Felt Security Scale)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의 전체 문항 수는 16개이나, 본 연구에서는 번역시 한국어에서 의미가 중첩되거나 문화적으로 어색한 5개 문항(예, 흠모 받는 느낌이다, 위협받지 않는 느

낌이다)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1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안정감을 느낀다.', '돌봄을 받는 느낌이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18-35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Rowe, Shepstone, Carnelley, Cavanagh와 Millings(201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4,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 부정적 정서

사회적 거절 절차 이후 실험 참가자의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Bushman, Bonacci, Pedersen, Vasquez와 Miller(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6개 정서 항목(즐거움, 기쁨, 속상함, 슬픔, 짜증이 나는, 기분이 언짢은)에 대해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케 하였다. 역환산 문항은 2문항(즐거움, 기쁨)이며, 전체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후에 부정적 정서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강함을 의미한다. Bushman 등(2005)의 대학생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8, 본 연구에서는 .73이었다.

### 실험절차

#### 실험 전

사전 온라인 설문 결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1SD 이하, +1SD 이상)에 해당하는 여대생 중 실험 참여에 동의한 90명을 무선 할당 방식을 통해 각 조건에 배정한 뒤 실험 날짜와 시간을 공지하였다. 실험은 2018년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OO대학교 발달심리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위장된 연구 제

목(가제: 협동 과제 수행과 심상화능력이 정서 인식명확성에 미치는 영향)과 목적으로 실험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여 실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다. 이러한 기만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참여자가 실험의 의도를 알아차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 실험 과정

실험은 설문지 작성, 자기소개 영상 촬영, 글쓰기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약 40분간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인구학적 정보(연령, 전공 계열, SES), 사회성, 거절 조작 절차 확인 질문, 애착 안정감 조작 확인 질문, 협동 과제 참여 의향 등 총 33문항이었다. 구체적인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초선 측정.** 실험 참여자들에게 의사소통 과정을 관찰하는데 참고하고자 간단한 설문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며 연구 참여자가 기본적으로 지니는 기초선 수준의 사회성을 측정하였다. 이는 참여자의 기본적 사회성이 추후 협동과제 참여 선호도에 줄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사회적 거절 유발 절차.** 사회적 거절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 DeWall 등(2009)의 사회적 거절 유발 절차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유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파트너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을 3분 내외로 촬영한다. 2) 영상 촬영이 끝나면, 연구자는 실험 참여자의 자기소개 영상을 옆방에 있는 파트너에게 전달하는 척 실험실을 나갔다가 5분 뒤에 돌아온다. 3) 연구자가 미리 찍어놓은 가상의 파트너의 영상을 실험

참여자에게 보여준 뒤, 영상에 나온 파트너에 대한 호감도와 이 사람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싶은 정도를 묻는 설문지를 내밀며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한다. 4) 실험 참여자가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고 나면 연구자는 가상의 파트너가 작성한 설문지를 내민다. 이 설문지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2점), '상대방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싶지 않다(2점)'에 표시가 되어있다. 5) 연구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실험 참여자 혼자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전달하고, 옆방의 실험 관계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척 가장하며 실험 참여자가 거절당했음을 재언급한다.

사회적 거절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정적 정서 항목 6문항에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많이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또한 얼마나 거절당한 기분이었는지에 대해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많이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과제.** 애착 안정감을 촉진하기 위해 Mikulincer와 Shaver(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식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조건에 배정된 연구 참여자들에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당면했던 상황을 떠올리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본인의 고민에 세심한 관심을 보이며, 순전히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제쳐놓고 기꺼이 당신을 돕고자 했던 사람으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았던 경험에 대해 15분간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반면 통제 조건의 참여자들에게는 서로 얼굴은 본 적이 있지만 거의 교류가 없으며 낯설게 느껴지는 중립



적인 관계인 사람에 대해 15분간 기술하도록 지시하였다(Karremans et al., 2011; Mikulincer et al., 2005).

글쓰기 과제 수행 후,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와 통제 글쓰기 과제 수행에 따라 애착 안정감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애착 안정감 척도가 제시되었다.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 측정.** Maner 등(2007)이 사용한 협동과제 참여 의향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적 거절 경험 후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을 측정하였다. 글쓰기 과제가 끝난 후 실험 참가자에게 실험 장소를 옮겨서 추가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혼자 참여하거나 여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할 수도 있다며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한 뒤, 여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를 12 점 Likert 척도(0: 전혀 함께 하고 싶지 않다 ~ 11: 매우 함께 하고 싶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선호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절 경험 후 연결성 회복 의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실험 의도를 간파한 자료를 파악하여 자료 분석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설문지의 가장 마지막에 실험 의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 실험 후

실험의 모든 과정을 마친 뒤 연구자는 실험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실제 목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연구의 본 목적을 알고 난 이후에도 자료 사용에 동의하는지 의사를 구한 후, 다시 동의서를 획득하고 실험 참여에 대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자료분석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실험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구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 조작에 대한 조작점검을 위해 대응표본 *t* 검정과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변인이 공변인으로 적절한지를 평가한 결과, 사회적 변인이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회적 변인을 통제하지 않고, 사회적 거절 경험과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 간의 관계가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수행 유무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집단 구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1SD 이하, +1SD 이상)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점수의 평균을 비교하였다(표 1 참조). 독립표본 *t* 검

표 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의 집단 차이 비교

	고 집단    저 집단		<i>t</i>
	<i>M</i> ( <i>SD</i> )	<i>M</i> ( <i>SD</i>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점수	53.09 (2.31)	28.83 (3.61)	-36.16***

\*\*\* *p* < .001

정 결과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고 집단 ( $M=53.09$ ,  $SD=2.31$ )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저 집단 ( $M=28.83$ ,  $SD=3.61$ )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t(65.70)=-36.16$ ,  $p<.001$ ,  $d=.80$ ). 특히  $d \geq .80$ 일 때 효과크기가 매우 큰 것으로 보았던 Cohen(1988)의 기준에 따라, 두 집단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조작 점검 결과

#### 사회적 거절

모든 피험자들에게 사회적 거절 유발 절차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거절에 대한 조작이

표 2. 사회적 거절 전후 조작 점검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거절 전	거절 후	$t$
	$M(SD)$	$M(SD)$	
부정적 정서(전체)	13.46 (3.24)	18.17 (3.17)	-12.63***
즐거움	3.59 (.73)	2.61 (.76)	11.17***
기쁜	3.28 (.77)	2.48 (.72)	8.23***
속상한	2.35 (.89)	3.08 (.95)	-5.63***
슬픈	2.17 (.84)	2.35 (.94)	-1.54
짜증이 나는	2.00 (.83)	2.66 (.89)	-5.75***
기분이 언짢은	1.81 (.89)	3.17 (.92)	-11.40***

\*\*\*  $p<.001$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거절 유발 전후의 부정적 정서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2 참조).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전체적으로 부정적 정서는 사회적 거절 유발 전 ( $M=13.46$ ,  $SD=3.24$ )보다 사회적 거절 유발 후 ( $M=18.17$ ,  $SD=3.17$ )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t(82)=-12.75$ ,  $p<.001$ . 효과크기는  $d=-1.47$ 로 사회적 거절 유발 전후 부정적 정서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정서는 사회적 거절 유발 전보다 거절 유발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고(효과크기: 즐거움,  $d=1.31$ ; 기쁜,  $d=1.07$ ), ‘슬픈’을 제외한 모든 부정적 정서는 사회적 거절 유발 전보다 거절 유발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속상한:  $d=-.79$ ; 짜증이 나는:  $d=-.77$ , 기분이 언짢은:  $d=-1.50$ ). 각 정서 변화의 효과크기는 중간 또는 큰 수준에 해당하여 의미 있는 변화임을 재확인하였다(Cohen, 1988).

한편, 사회적 거절 유발 절차 동안 얼마나 거절당한 기분을 느꼈는지를 물어본 문항의 평균은 3.60점( $SD=.84$ )으로, 5점 Likert 척도의 중간값 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거절 경험에 대한 조작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애착 안정감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과제의 조작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과제를 수행한 집단과 수행하지 않은 집단 간에 나타나는 애착 안정감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3 참조).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를

수행한 집단이( $M=46.52$ ,  $SD=5.92$ ) 통제 글쓰기를 수행한 집단보다( $M= 21.02$ ,  $SD=6.58$ ) 더 높은 수준의 애착 안정감을 보고하였으며,

표 3.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및 통제 조작에 대한 두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애착 안정성 점화 조건	통제 조건	<i>t</i>
	<i>M</i> ( <i>SD</i> )	<i>M</i> ( <i>SD</i> )	
애착 안정감 (전체)	46.52 (5.92)	21.02 (6.58)	18.57***

\*\*\**p*<.001

$t(82)=18.57, p<.001$ , 효과크기도  $d=4.07$ 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하였다 (Cohen, 1988). 따라서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를 통한 애착 안정감 조작 역시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 공변인(사회성)의 유의성 검증 결과

종속변인에 나타난 처치효과 이외에 가외변인으로 인해 야기된 차이를 없애기 위해 공분산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분산분석의 기본 가정을 검증하였다. 공분산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공변인과 종속변인 간에는 충분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공변인과 처치변인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공변인인 사회성과 종속변인인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은  $r=.24(p<.05)$ 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공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 정도가 .60 이상이 되어야 공분산분석 가정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Kennedy & Bush, 1985), 첫 번째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회성을 공변인으로 지정하여 이원공분산분석(two-way ANCOVA)을 실시하는 것보다 통상적인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는 것

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 사회적 거절 경험 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유무에 따른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사회적 거절 경험과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 간 관계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수준과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Levene의 등분산성 검정 결과, 등분산성 가정은 만족되었다,  $F(3,79)=1.21, n.s.$  이원분산분석결과(표 4 참조),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서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를 수행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F(1,79)=8.98, p<.01, \eta^2=.10$ ). 반면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고 집단과 저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1,79)=.51, n.s$ ). 한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과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수행 여부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79)=4.50, p<.05, \eta^2=.05$ ).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단순주효과 검정을 실시한 결과(그림 1 참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애착 안정

표 4.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수행 여부에 따른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 대한 기술통계

	실험조건( $n=42$ )	통제조건( $n=41$ )	전체( $n=83$ )
	$M(SD)$	$M(SD)$	$M(SD)$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고 집단( $n=43$ )	4.77(2.93)	2.14(1.88)	3.49(2.78)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저 집단( $n=40$ )	4.05(2.33)	3.60(2.04)	3.82(2.17)
전체( $n=83$ )	4.43(2.65)	2.85(2.07)	3.65(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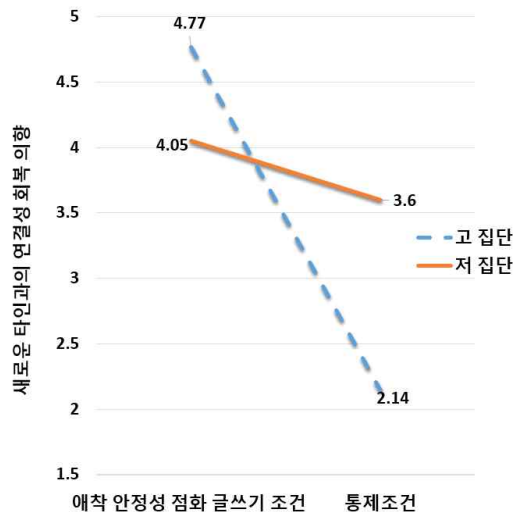


그림 1.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 대한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유무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성 점화 글쓰기 시행 유무에 따라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F(1,79)=13.58, p<.001$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시행 유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F(1,79)=.37, n.s$ ). 한편,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조건( $F(1,79)=1.00, n.s$ ), 통제 글

기 조건( $F(1,79)=3.98, n.s$ ) 각각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는 사회적 거절 경험이 여대생의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애착 안정성 점화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회적 거절을 경험한 개인의 연결성 회복 의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형성에 기여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사전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에 따라 고/저 집단을 구분하고,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와 통제 글쓰기 조건에 각 집단을 무선 할당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원분산분석 결과,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 대한 애착 안정성 점화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애착 안정성 점화 조작을 통해 긍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활성화시킨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사회적 거절 경험으로부터 유발된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

로 조절했을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긍정적 표상을 회복하여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도 위협이 아닌 유대를 맺을 수 있는 자원으로 해석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새로운 타인과의 협동과제에도 거부감 없이 참여하려는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사회적 거절 경험 이후 애착 안정성 점화를 통해, 타인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이 향상됨을 보여주었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Hermann et al., 2014; Mikulincer et al., 2003).

일상생활 속에서 애착 안정성 점화를 실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단순히 애착 대상으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은 경험을 떠올리는 것(예, 애착 대상과의 긍정적인 추억에 관한 일기를 다시 찾아보기)만으로도 애착 안정성을 점화시킬 수 있다. 또한 애착 대상과의 긍정적인 추억이 없을 경우, 그러한 경험을 상상해 보게 하거나, 애착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사진(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서로를 껴안으며 위로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등 간접적으로 안정 애착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애착 안정성 점화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Mikulincer & Shaver, 2007). 즉 애착 안정성 점화는 평소 본인에게 지지와 사랑을 제공해주는 대상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하지 않은 때에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거절을 경험할 때마다 타인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내적 작동모델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애착 안정성 점화를 반복 연습하고 습관화시킬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 있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절 경험 이후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Mallot et al., 2009; Maner et al., 2007)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가장 먼저 본 연구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고/저 집단 간에 협동과제 참여 의향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만큼 두려움 수준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독립집단 *t* 검증 결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고 효과크기 역시 8.00으로 Cohen의 기준(1988)에서 매우 큰 편에 속한다. 따라서 두 집단 간 두려움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가능한 이유로는 사회적 거절을 조작하는 실험적 방법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거절 조작 방법(DeWall et al., 2009)이 두려움 수준 고/저 집단 간 부정적 정서와 거절감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 내긴 하였으나, 거절을 경험한 후 새로운 타인과의 만남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부정적인 인지처리를 활성화 시켰는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의 거절 유발 절차는 실험 파트너가 실험실에 직접적으로 출현하지 않고 연구자의 설명과 인터뷰 영상을 통해 옆 방 실험실에 실험 파트너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선에서 그쳤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물리적으로 거절을 당한 것과 같은 강력한 거절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Gaertner 등(2008)의 연구에서는 실험 보조자 3명과 피험자 1명이 팀을 이루어 배구를 하도록 한 뒤 추가과제를 하고 싶은 파트너를 선

택하게 했는데, 실험 보조자 3명을 제외한 피험자 1명이 아무에게도 선택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회적 거절을 조작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연구자의 설명을 통해 거절을 통보받는 경험에 비해 개인에게 더 강력한 거절 경험을 선사했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거절 경험 이후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 있어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유무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운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하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낮은 집단은 애착 안정성 점화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연결성 회복 의향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집단은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수행 후에 더 높은 연결성 회복 의향을 나타냈다. 이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인지적 처리 과정에 실험적 처치를 가함으로써 사회적 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반응을 촉진할 수 있었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Lucas et al., 2010; Molden et al., 2008).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까 두려워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상호작용 상황 자체를 회피해버리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또 다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Cacioppo & Hawley, 2005).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애착 안정성 점화를 실시하여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단 1회에 걸쳐 15분 동안 애착 안정성 점화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

하였는데, 만약 애착 안정성 점화 처치를 15분 보다 긴 시간 동안 여러 회기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면 거절 경험 이후 부정적 인지 처리를 개선하고 사회적 연결성 회복 의향을 향상시키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Mikulincer와 Shaver(2007)는 여러 회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애착 안정성 점화를 실시한 경우 점화를 실시하지 않은 정상시에도 애착 대상과 관련된 기억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정서조절과 인간관계에 대한 신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애착 안정성 점화를 시켰을 때,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집단은 거절을 겪은 뒤 새로운 타인과의 만남을 잠재적 위협으로 지각하여 관계 맺기를 회피하는 반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약한 집단은 거절을 겪은 뒤 새로운 타인과의 만남을 연결성 회복을 위한 기회로 해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연결성 회복 의향을 보인다(Bernstein et al., 2008; DeWall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약한 사람들보다는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이 애착 안정성 점화로 훨씬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애착 안정성 점화를 받을 경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과는 상관없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연결성 회복 의향을 보였다. 이는 그만큼 애착 안정성 점화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실험연구를 통해 사회적 거절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절 경험에 대한 많은 국내

실험연구들은 글쓰기 과제를 통해 사회적 거절을 조작한 바 있다. 그러나 글쓰기 과제는 각자가 경험한 사회적 거절의 내용, 심각성, 시기 등의 다양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동일한 실험 공간에서 동일한 거절 절차를 실시하여 이러한 개인차 변인들을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거절 경험과 연결성 회복 의향 간의 인과관계가 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회적 거절 경험에 대한 국내 실험연구의 대부분이 사회적 거절 경험 이후의 부정적 결과, 특히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거절 경험 이후에도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긍정적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크게 차별화된다. 사회적 거절 경험 이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완충할 수 있는 조절변인에 관심을 갖고 공격성을 줄일 수 있는 개입전략의 도출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타인과의 유대 형성을 위한 친사회적 반응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는지는 답해 주지 않는다.

더불어 본 연구는 사회적 거절로 인한 부정적인 인지 처리를 완화하여 새로운 유대관계를 구축하고자하는 의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경우, 애착 안정성 점화를 통해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누군가와의 긍정적 관계 경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 회복성 의향을 유의하게 증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러한 개입이 1회 15분간의 단기 처치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애착 안정성 점화의 실질적 이득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사회적 거절 경험에 특히 취약하다고 판단된 여대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남녀 대학생 모두에 대해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 집단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던 사회성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사회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변인이 아님이 밝혀진 관계로 연결성 회복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차 변인을 통제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외향성,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정도 등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고려하여 이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와 통제 글쓰기 간 연결성 회복 의향의 차이가 거절 경험 이후 느낀 '애착 안정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단순히 '긍정적 정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세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예,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집단, 긍정적 정서 점화 글쓰기 집단, 통제 글쓰기 집단) 연결성 회복 의향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현주, 김준영 (2008). 청소년의 사회적 거절 수준과 사회적 관계망과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5, 1-27.

- 이강아, 홍혜영 (2013). 대학생의 공격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271-2290.
-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 (K-SAD, K-FNE) 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artz, J. A., & Lydon, J. E. (2004). Close relationships and the working self-concept: Implicit and explicit effects of priming attachment on agency and commun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11), 1389-1401.
-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Twenge, J. M. (2005). Social exclusion impairs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589.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ernstein, M. J., Young, S. G., Brown, C. M., Sacco, D. F., & Claypool, H. M. (2008). Adaptive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Social rejection improves detection of real and fake smiles. *Psychological Science*, 19(10), 981-983.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 Bushman, B. J., Baumeister, R. F., & Phillips, C. M. (2001). Do people aggress to improve their mood? Catharsis beliefs, affect regulation opportunity, and aggressiv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17.
- Bushman, B. J., Bonacci, A. M., Pedersen, W. C., Vasquez, E. A., & Miller, N. (2005). Chewing on it can chew you up: effects of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969-983.
- Cacioppo, J. T., & Hawley, L. C. (2005). People thinking about people: The vicious cycle of being a social outcast in one's own mind. *The social outcast: Ostracism, social exclusion, rejection, and bullying* (pp. 91-108). New York: Psychology Press.
- Cassidy, J., Shaver, P. R., Mikulincer, M., & Lavy, S. (2009). Experimentally induced security influences responses to psychological pai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8(4), 463-478.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330.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 Collins, N. L., & Feeney, B. C. (2000). A safe haven: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on support seeking and caregiving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6), 1053.
- DeWall, C. N., & Bushman, B. J. (2011). Social acceptance and rejection: The sweet and the bitte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 20(4), 256-260.
- DeWall, C. N., Twenge, J. M., Gitter, S. A., & Baumeister, R. F. (2009). It's the thought that counts: The role of hostile cognition in shaping aggressive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1), 45.
- Duke, D., Krishnan, M., Faith, M., & Storch, E. A. (2006).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6), 807-817.
- Gaertner, L., Iuzzini, J., & O'Mara, E. M. (2008). When rejection by one fosters aggression against many: Multiple-victim aggression as a consequence of social rejection and perceived groupn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4), 958-970.
- Gardner, W. L., Pickett, C. L., & Brewer, M. B. (2000). Social exclusion and selective memory: How the need to belong influences memory for social ev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4), 486-496.
- Gillath, O., Selcuk, E., & Shaver, P. R. (2008). Moving toward a secure attachment style: Can repeated security priming help?.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4), 1651-1666.
- Gillath, O., & Shaver, P. R. (2007). Effects of attachment style and relationship context on selection among relational strateg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4), 968-976.
- Heimberg, R. G., Liebowitz, M. R., Hope, D. A., Schneier, F. R. (Ed.). (1995).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ermann, A. D., Skulborstad, H. M., & Wirth, J. H. (2014). Inoculating against the aversive effects of ostracism with acceptance: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Social Influence, 9*(4), 255-271.
-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 1280-1300.
- Jamieson, J. P., Harkins, S. G., & Williams, K. D. (2010). Need threat can motivate performance after ostrac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5), 690-702.
- Karremans, J. C., Heslenfeld, D. J., van Dillen, L. F., & Van Lange, P. A. (2011). Secure attachment partners attenuate neural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An fMRI investig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81*(1), 44-50.
- Kennedy, J. J., & Bush, A. J. (1985). *An introduction to the design and the analysis of experiments in behavioral research*.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Knowles, M. L. (2014). Social rejection increases perspective tak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5*, 126-132.
- Kumashiro, M., & Sedikides, C. (2005). Taking on board liability-focused information: Close positive relationships as a self-bolstering resource. *Psychological Science, 16*(9), 732-739.
- Lansford, J. E., Malone, P. S.,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2010). Developmental cascades of peer rejectio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biases, and aggression during middle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3), 593-602.
- Leary, M. R. (1983).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Bulletin*, 9(3), 371-375.
- Leary, M. R., Herbst, K. C., & McCrary, F. (2003). Finding pleasure in solitary activities: Desire for aloneness or disinterest in social conta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1), 59-68.
- Leary, M. R., Twenge, J. M., & Quinlivan, E. (2006). Interpersonal rejection as a determinant of anger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2), 111-132.
- Lee, R. M., & Robbins, S. B. (2000). Understanding social connectednes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4), 484-491.
- Lucas, G. M., Knowles, M. L., Gardner, W. L., Molden, D. C., & Jefferis, V. E. (2010). Increasing social engagement among lonely individuals: The role of acceptance cues and promotion motiv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10), 1346-1359.
- Luke, M. A., Sedikides, C., & Carnelley, K. (2012). Your love lifts me higher! The energizing quality of secure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6), 721-733.
- Mallott, M. A., Maner, J. K., DeWall, N., & Schmidt, N. B. (2009). Compensatory deficits following rejection: The role of social anxiety in disrupting affiliative behavior. *Depression and Anxiety*, 26(5), 438-446.
- Maner, J. K., DeWall, C. N., Baumeister, R. F., & Schaller, M. (2007). Does social exclusion motivate interpersonal reconnection? Resolving the "porcupine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42.
- Mellor, D., Stokes, M., Firth, L., Hayashi, Y., & Cummins, R. (2008). Need for belong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3), 213.
- Mikulincer, M., Hirschberger, G., Nachmias, O., & Gillath, O. (2001). The affective component of the secure base schema: Affective priming with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secu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2), 305.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1). Attachment theory and intergroup bias: Evidence that priming the secure base schema attenuates negative reactions to out-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97.
- Mikulincer, M., & Shaver, P.R. (2004). Security-based self representations in adulthood: Contents and processes. In N.S. Rholes, & J.A. Simpson (Eds),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pp. 159-195). New York: Guilford.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5). Attachment security, compassion, and altru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1), 34-38.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Boosting attachment security to promote mental health, prosocial values, and inter-group tolerance. *Psychological Inquiry*, 18(3), 139-156.
- Mikulincer, M., Shaver, P. R., Bar-On, N., & Sahdra, B. K. (2014). Security enhancement, self-esteem threat, and mental depletion affect provision of a safe haven and secure base to a

- romantic partner.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1(5), 630-650.
- Molden, D. C., Lee, A. Y., & Higgins, E. T. (2008). Motivations for promotion and prevention. In J. Shah & W. Gardner (Eds.), *Handbook of motivation sci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Molden, D. C., & Maner, J. K. (2013). How and when exclusion motivates social reconnection. In C. N. DeWall (Ed.), *The Oxford handbook of social exclusion* (pp. 121-13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haro, H., Gross, J., Richardson, R., & Hayne, H. (2011). Age-related changes in the effect of ostracism. *Social Influence*, 6(1), 22-38.
- Rowe, A., & Carnelley, K. B. (2003). Attachment style differences in the processing of attachment-relevant information: Primed-style effects on recall, interpersonal expectations, and affect. *Personal Relationships*, 10(1), 59-75.
- Rowe, A. C., Shepstone, L., Carnelley, K. B., Cavanagh, K., & Millings, A. (2016). Attachment security and self-compassion priming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first-time engagers in mindfulness meditation will continue with mindfulness training. *Mindfulness*, 7(3), 642-650.
- Rubin, A., & Babbie, E. (2008).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Belmont, CA: ThomsonHigher Education.
- Sullivan, T. N., Farrell, A. D., & Kliewer, W. (2006). Peer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and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drug use, aggression, and delinquent behaviors among urban middle school stud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1), 119-137.
- Tanaka, H., & Ikegami, T. (2015). Fear of negative evaluation moderates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selective attention to social signs. *Cognition and Emotion*, 29(7), 1306-1313.
- Tsumura, K., & Murata, K. (2015).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group membership of potential affiliates on social reconnection after ostracism. *Current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23(3), 18-25.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
- Twenge, J. M., Catanese, K. R., & Baumeister, R. F. (2003). Social exclusion and the deconstructed state: Time perception, meaninglessness, lethargy, lack of emotion, and self-awar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3), 409.
- Twenge, J. M., Zhang, L., Catanese, K. R., Dolan Pascoe, B., Lyche, L. F., & Baumeister, R. F. (2007). Replenishing connectedness: Reminders of social activity reduce aggression after social exclus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1), 205-224
- Van Ryzin, M. J., Gravely, A. A., & Roseth, C. J. (2009). Autonomy, belongingness, and engagement in school as contributors to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1), 1-12.
- Warburton, W. A., & Williams, K. D. (2005). When competing motivations collide. *Social*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motivation: Conscious and Unconscious Processes*,  
294-313.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4), 448.

1차원고접수 : 2018. 07. 13.

수정원고접수 : 2018. 08. 20.

최종게재결정 : 2018. 08. 28.

## The Effect of Security Priming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on Desire to Reconnect after Social Rejection for Female College Students

Bo-ram Hwang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curity priming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on the process of social rejection leading to the desire to reconnect. A sample of 90 female university students aged 18 to 25 year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The analysis used a 2 (security priming writing/control)  $\times$  2 (fear of negative evaluation: high/low) ANOVA test. Before the experiment, the subjects were tested by an online survey that categorized them as the low or high fear of negative evaluation. The social rejection procedure and security priming writing task were used to manipulate social rejection and felt-security, respectively. The desire to reconnect was measured by a scored task in which the subjects selected their extents of preference for future collaborative tasks. The results found a significant main effect of security priming writing an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security priming and the extent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on the desire to reconnect. Based on these results, the paper discusses the effectiveness of security priming for establishing new social ties after social rejection.

*Key words* : social rejection, desire to reconnect, security priming, fear of negative evaluation